

2021년 전기차 판매 실적 및 시장 동향

KATECH Insight

- ◆ '21년 글로벌 전기차(BEV) 판매량은 472만대로 전체 완성차 판매량의 5.8%를 점유하였으며, 완성차그룹별 판매량은 테슬라, 상해기차, 폭스바겐, BYD, 현대차그룹의 순
- ◆ '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, 국가별로 구매보조금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별 판매량 증가세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

■ '21년 글로벌 전기차(BEV) 신차 판매량은 472만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

-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% 증가하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2% 증가로 완성차 전체 판매량의 5.8%를 점유
- '21년에는 중국, 유럽, 미국, 한국 등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며, 특히 중국은 판매량 및 성장률 측면에서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
- 완성차그룹별로 볼륨 모델의 증산에 성공한 테슬라, 초소형 전기차로 인기를 끈 상해기차, 전기차 전용 모델의 본격 판매를 시작한 폭스바겐이 세계 전기차 판매순위 1~3위 기록
- 테슬라는 '모델3'와 '모델Y'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제조 부문에서 수익성 확보에 성공했고, 상해기차는 상해GM우링의 '홍광 MINI'를 통해 새로운 전기차 카테고리 창출의 가능성을 입증
- * '21년 Top5 모델 판매량: 테슬라 모델3(47.0만대), 모델 Y(42.6만대), 상해GM우링 홍광 MINI(41.9만대), BYD 한(漢)(8.7만대), 체리기차 eQ1(7.7만대)
- 폭스바겐은 본격 양산에 돌입한 전기차 ID.3, ID.4 등의 판매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, 현대차그룹도 다양한 신차 출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

Ⅰ 국가별 및 완성차그룹별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) Ⅰ

구분		2018	2019	2020	2021	성장률(19-20)	성장률(20-21)
국가별	중국	1,069,194	1,035,752	1,054,169	2,717,937	2%	158%
	유럽	229,865	391,159	783,658	1,281,449	100%	64%
	미국	239,080	246,996	260,055	505,988	5%	95%
	한국	30,815	35,443	46,909	100,681	32%	115%
	일본	28,037	21,932	16,028	23,280	△27%	45%
	기타	29,818	44,546	59,592	88,393	34%	48%
그룹별	테슬라	249,600	376,862	494,244	921,642	31%	86%
	상해기차	79,117	99,072	235,425	611,023	138%	160%
	폭스바겐	27,164	83,870	220,818	436,669	163%	98%
	BYD	116,908	150,200	122,778	335,257	△18%	173%
	현대차	49,386	81,059	145,609	240,500	80%	65%
	기타	1,104,634	984,765	1,001,537	2,172,637	2%	117%
BEV 합계 (비율)		1,626,809 (1.8%)	1,775,828 (2.0%)	2,220,411 (2.9%)	4,717,728 (5.8%)	25%	112%
완성차 전체		94,329,189	90,185,388	77,771,796	80,712,210	△14%	4%

* 출처: (전기차) SNE리서치 '22.1월, (완성차) LMC Automotive '21.3Q('21년은 예상)

■ 내수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테슬라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시장 확대를 주도

- 최근 현대차그룹의 내수 전기차 판매량은 연 2만대 수준이었으나 '21년부터 현대 아이오닉5(4월), 기아 EV6(8월), 제네시스 eG80(7월)·GV60(9월) 등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판매량 증대
- 승용 및 SUV 부문으로 한정하면 현대차그룹과 테슬라가 뚜렷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'21년에는 아이오닉5, EV6 등의 볼륨 모델이 테슬라 모델 3·모델Y 판매량을 추월
-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하며 고가 전기차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으며, 국내 중견 완성차 3사는 전기차 모델의 부재, 기존 모델 노후화 등으로 다소 미미한 실적 기록

* 다만 중견 3사 중 쌍용자동차가 '코란도 이모션', 한국GM(쉐보레)이 '볼트EUV' 등을 '22년에 출시할 예정

■ 국내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) ■

기업명	2018	2019	2020	2021	성장률(19-20)	성장률(20-21)
현대차그룹	22,038	23,552	27,888	71,785	18%	157%
현대 아이오닉5	-	-	-	22,671	-	-
현대 포터2EV	-	124	9,037	15,805	7,188%	75%
기아 EV6	-	-	-	11,023	-	-
기아 봉고EV	-	-	5,357	10,728	-	100%
테슬라	588	2,430	11,826	17,828	387%	51%
모델3	-	1,604	11,003	8,898	586%	△19%
모델Y	-	-	-	8,891	-	-
아우디	-	-	601	1,553	-	158%
벤츠	-	24	608	1,363	2,433%	124%
포르쉐	-	-	48	1,296	-	2,600%
합계	30,815	35,443	46,909	100,681	35%	115%

* 출처: SNE리서치('22.1월)

■ '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, 국가별로 구매보조금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별 판매량 증가세는 상이할 것으로 전망

- 올해에도 주요 완성차기업 및 신생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,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볼륨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지속
- 다만,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반도체 공급 부족 및 니켈·코발트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한 완성차 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 차이가 실제 전기차 판매량에 반영될 전망
- 최근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보조금 영향이 큰 초기 시장으로, 올해 일부 국가의 구매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판매 양상 및 증가세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

*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파워를 확보한 테슬라 등 주요 업체 외에는 보조금 변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

- (중국) 전기차 보조금을 '21년 대비 30% 삭감할 예정으로 보조금과 무관한 초소형·고가 전기차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, 보조금 적용 대상인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타격을 받을 전망
- (일본)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80만엔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, 특히 도요타의 전기차인 BZ4X가 출시되는 시점인 '22년 중순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(한국)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*이 감소(800→700만원)하고 보조금 100% 지급을 위한 차량 가격 상한선이 하락(6,000→5,500만원)함에 따라 보조금 적용 모델로의 판매량 쏠림 예상

* 대당 국고보조금은 축소 중이나 전체 예산은 확대 중('20년 0.8조원 → '21년 1.2조원 → '22년 1.9조원)